

특색있는 문학이란 무엇인가?

1. 서론

2. 본론

2.1 - 특색이란 무엇인가? (정의)

특색이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2.2 - 특색있는 문학작품은 무엇이 있는가?

2.3 - 특색은 어떻게 발현하는가?

3. 결론

서론

음악에서는 편곡을 하거나 자신만의 곡을 만들면 작가의 스타일이 묻어나온다. 어떤 사람은 편곡할 때마다 재지한 느낌이 나고, 어떤 사람은 블루스한 느낌이 나는 등,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나오는 창작물은 그사람의 개성을 구현한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들을 각기 다르게 정하여 자신의 개성을 만든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코드 진행이 다르고 좋아하는 악기가 다르며 또한 연주방식이 다르다. 이렇듯 개인은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바탕으로 하여 마음에 드는 장르를 정한다. 마찬가지로 문학에서도 각 사람마다 마음에 드는 장르가 다를 것이며 자신의 창작물마다 쓰는 방식이나 표현 등, 자신의 개성과 방식에 알맞은 표현이 있을 것이다.

특색은 창작물에서 느껴지는 각 사람이 지닌 색깔이다. 사람마다 가지는 색깔은 그 창작물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작가의 특색이 가지는 매력은 대체할 수 없다. 대중들은 작품을 읽으며 자신의 취향을 파악하고 취향에 알맞은 창작물을 선호한다. 그렇게 특색이 발현되었을때 고정 독자가 생기는 것이다.

해리포터를 쓴 작가 J.K. 롤링을 예로 들겠다. 『해리포터』를 처음 읽을때 책을 즐기고 난 후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것을 안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올 책을 기대한다. 사람들은 후속편을 기대하고 시리즈를 읽으며 자연스럽게 작가가 누군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J.K롤링 작가가 쓴 다른 소설을 기대하게 된다.

J.K 롤링이 쓴 해리포터에 열광하는 대중들은 해리포터와 같은 세계관을 다루고 있는 『신비한 동물사전』 또한 선호한다. 사람들이 해리포터라는 스토리에만 열광했더라면 같은 세계관을 다루고 있는 ‘신비한 동물사전’에 관심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신비한 동물사전’은 전세계 4억

50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이것은 J.K.롤링이라는 작가가 가진 그 작가만의 개성과 특색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작가가 아무리 J.K.롤링과 같은 세계관의 소설을 쓴다고 해도, J.K. 롤링의 이야기 전개 방식과 작가의 색깔을 따라 쓸 수 없다. 또한 대중들은 원 작가에게 얻은 문학적 충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작가가 쓴 비슷한 소설을 찾을 이유가 없다. 또한 원 작가의 스토리 진행 방식과 그 사람의 색깔에 취해있어 비슷한 소설을 읽고자하는 마음이 떨어진다.

특색은 사람을 오묘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해리포터를 읽으면 재밌다고 느낀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재밌는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물론 판타지라는 좋은 재료를 선택한 것이 탁월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전개과정, 갈등과 고조내에서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들과 그 안에서의 단어선택, 소소한 감정선들로 인해 자연스레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그렇기에 작가만의 특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작가의 특색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그 작가의 창작물의 색깔이 더욱 뚜렷해지니 독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소논문에서는 특색이란 무엇이며, 어떤 작품들이 특색있는 것이고, 어떻게 발현할 수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특색의 정의

특색이란 무엇인가? 특색은 사전에 따르면 ‘보통의 것과 다른점¹’ 이라고 나와있다. 이처럼 특색있다는 말은 다른 것과는 달리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색’을 사람이 지니는 각자의 개성으로 정의를 함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특색은 앞서 말했듯 창작물에서 느껴지는 각 사람의 색깔이다. ‘각 사람의 색깔’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인물 묘사, 장면 묘사, 생동감 있는 표현, 단어 선택, 감정 등등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방식인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 방식을 ‘화식(話式)’으로 말할 수 있다.

특색있는 문학작품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작가의 작품을 설명하고자 한다. 독자들은 개성있는 작품에 익숙해지면 개성이 없는 작품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1920년대를 대표하는 근현대 작가 김유정과 현진건이 창작한 작품으로 그들의 화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¹네이버 국어사전

특색있는 문학작품은 무엇이 있는가?

작가 이름	작품	특징
현진건	운수 좋은 날 (1924) 고향 (1926)	세세한 묘사 및 표현 서민들의 일상을 흥미롭게 풀어냄
김유정	동백꽃, 봄봄 (1938)	향토적, 훈훈한 사랑 민중적인 내용 (공감과 슬픔)

〈표 -1〉

현진건, 김유정 작가 정보 (출처 : 위키백과, 김유정 문학촌)

현진건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았던 작가이자 언론가, 독립운동가이다.² 그의 소설들을 보면 뭔가 특별하거나 이색적인 느낌보다는 일상적이며 한국적이다.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운수 좋은 날』과 『고향』은 당시 삶을 살던 서민들의 일상을 현실적으로 그려낸 대표 작품이다.

현진건 작가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세세한 표현이다. 『운수 좋은 날』 중 김침지의 선술집 친구 치삼이와 김침지의 모습을 상세히 설명하는 장면이 있다.

“그의 우글우글 살찐 얼굴에 주홍이 돌는 듯, 온 턱과 뺨을 시커멓게 구레나룻이 덮였거든, 노르탱탱한 얼굴이 바짝 말라서 여기저기 고랑이 파이고 수염도 있대야 턱밑에만 마치 솔잎 송이를 거꾸로 붙여놓은 듯한 김침지의 풍채하고는 기이한 대상을 짓고 있었다.”

현진건, 『운수 좋은 날』 중

² 위키백과

작가는 ‘치삼이’의 외형을 위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얼굴은 ‘우글우글 살찐 얼굴’, ‘은 턱과 뺨을 시커멓게 구레나룻이 덮였거든’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김침지를 ‘노르탕탕한 얼굴이 바짝 말라서 … 수염도 있대야 턱밑에만 마치 솔잎 송이를 거꾸로 붙여놓은 듯한’이라는 세세한 표현 머리속에 치삼이과 김침지의 이미지가 자세하게 그려진다. 특히 ‘우글우글’이나 ‘노르탕탕한’과 같은 의태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현진건은 외형 묘사를 외국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한국적 표현으로 서술하며 한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또 『고향』 중 한국, 중국, 일본 옷을 섞어입은 ‘그’가 무심코 노동자 합숙소라는 말을 함으로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는 장면이다.

“그는 답답한 제 신세를 생각했던지 찡그려 보였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하였다. 군데군데 찢어진 경성드뭇한 눈썹이 알알이 일어서며 아래로 축 처지는 서슬에 양미간에는 여러 가닥 주름이 잡히고 광대뼈 위로 뺨 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 볼은 쪽 빨아든다. 입은 소태나 먹은 것처럼 왼편으로 뺨뚱어지게 찢어 올라가고, 조이던 눈엔 눈물이 괴인 듯 삼십 세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의 얼굴이 십년간량은 늙어진듯 하였다.”

현진건, 『고향』 중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물 묘사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의 얼굴을 제3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세세히 표현하여 나도 같이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이 뿐만 아니라 현진건의 대부분의 소설은 서민들의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굉장히 일상적이며 사실적으로 담아냄으로서 우리가 마치 그 상황 속에 있는 듯한 흥미로운 느낌을 준다. 특히 현진건의 『고향』

의 경우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 먹고살았는데 ---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는 내용을 통해 당시 일제로 인한 사람들의 억압받고 힘든 삶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에 살고 있는 독자는 이와 같은 현진건의 화식을 통하여 근현대의 서민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다. 그는 일제강점기때의 작가이자 독립운동가로서 일제에 대한 반발심과 일제의 의하여 고통받았던 서민들의 모습을 담아내어 자신의 반일적인 마음을 표현했다.

또한 몇 인물들이 사투리를 사용하여 그의 특색인 일상적인 내용을 더욱 생생하게 담을 수 있었다.

“전차 정류장에서 어름어름하며 손님 하나를 태울 궁리를 하지 않았나? 거기 마침 माम님이신지 여학생님이신지(요새야 어데 논다니와 아가씨를 구별할 수 있던가) 망토를 잡수시고 비를 맞고 서 있겠지. 슬근슬근 가까이 가서 인력거 타시랍시오 하고 손가방을 받으려니까 내 손을 탁 뿌리치고 뺄 돌아서더니만 ‘왜 남을 이렇게 귀찮게 굴어!’ 그 소리야 말로 피꼬리 소리지, 허허”

현진건, 『운수 좋은 날』 중

“에이구 오래 살았구마, 나는 처음 길인데 우리 같은 막별이꾼이 차를 내려서 어데로 찾아가야 되겠는기오? 일본으로 말하면 ‘기진야도’같은 것이 있는기오?”

현진건, 『고향』 중

김유정 또한 대한제국, 일제강점기때에 살았던 소설가이다. 그의 작품들을 보면 특별하다기보단 일상적인 느낌에 가깝고, 그 안에 사랑이야기를 품고있는 경우가 많다.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동백꽃』과 『봄봄』을 통해 김유정의 화식을 알아가보자.

김유정 작가의 글들은 매우 향토적이므로, 주배경이 대부분 시골이다.

“계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계를 할금할금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껏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 날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중략-~~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이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이 바보 녀석아! 얘! 너 배냇병신이지? 얘 너 느 아버지가 고자라지?” “뭐 올 아버지가 그레 고자야?”

김유정, 『동백꽃』 중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날, 왜 내가 새고 개 맞은 봉 우리 화전발을 혼자 갖고 있지 않았느냐.”

~~-중략-~~

“그럼 봉필씨! 얼른 성례를 시켜 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구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말에 장인님이 샷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아 성례구 뭐구 계집애년이 미쳐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고만 멀쭉해져서 입맛만 짹짹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두 그레!”

“그레, 거진 사년 동안에도 안 자랐더니 그 킨 은제 자라지유” 다 그만두구 사정 내슈……”

"글쎄, 이자식이! 내가 크질 말라구 그랬니. 왜 날 보구 떼냐?"

"빙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앨 낳지유?"

김유정, 『봄봄』 중

위와 같이 그의 『동백꽃』과 『봄봄』은 시골을 주 배경으로 하고있다. 특히 『동백꽃』에서 점순이가 감자를 주며 “느 집엔 이런거 없지?”하는 것을 보아 그 당시 사람들의 형편이 그닥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인물들의 대부분이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향토적인 분위기를 낸다.

『동백꽃』의 줄거리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점순이가 ‘나’를 좋아했다. 그래서 점순이가 사람들 몰래 삶은 감자를 주지만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거절한다. 그 후로 심술을 부리며 점순이는 순진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나’에게 더 관심을 얻으려고 ‘나’집의 닭을 데려가 점순이네 닭과 싸움을 여러번 붙이자 ‘나’는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난 나머지 점순이네 닭을 때려죽이고 만다. 그리고 정신이 돌아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운다. 그러자 점순이가 자기말을 잘 들으면 이르지 않겠다고 하여 약속을 하고, 뒤에 떠다 밀렸는지 둘이 같이 넘어져 동백꽃 속으로 파묻힌다.

『봄봄』의 줄거리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나’는 점순이와의 혼례를 위해 3년 7개월 동안 대가없이 열심히 일을 했다. 하지만 장인은 점순이가 덜 컸다는 이유로 혼례를 미루었다. ‘나’는 억울한 마음에 구장에게 이야기하였으나 구장은 장인의 편을 들었다. ‘나’는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나 장인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허탈해진 ‘나’에게 장인은 올 가을엔 혼인을 시켜주겠다고 하자 ‘나’는 힘을 얻어 다시 일을 하러간다.

김유정은 이렇듯 흥미로운 갈등과 함께 사랑을 담아내었다. 『동백꽃』에서는 점순이의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였고, 『봄봄』은 ‘나’가 데릴사위로 점순이와 결혼하기 위해 대가없이 일한 순수한 사랑 등 동정심이나 그 인물에게 독자가 마음을 쓰게되는 그런 화식을 지니고 있다.

또한 김유정 작가는 부족한 표현들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

“점순네 수탉(대강이가 크고 푹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김유정, 『동백꽃』 중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짓 놈의 장인님하곤 아무것도 안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보아서 수염만 채고(제 원대로 했으니까 이때 점순이는 퍽 기뻐했지)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이걸 까셀라부다!’하고 소리를 쳤다.”

김유정, 『봄봄』 중

김유정 작가는 현진건 작가와는 다르게 세세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위치럼 가로를 사용하여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는 식의 글을 선택했다. 이 또한 작가의 색깔이라 말할 수 있으므로 화식이라 할 수 있다.

특색은 어떻게 발현하는가?

특색은 작가만의 색깔, 곧 화식이라고 앞서 이야기 했다. 곧 자신만의 이야기 방식인 것이다.

자신만의 화식을 찾는 방법을 단순하게 말하면 많이 써보는 것이다. 색깔이 발현하는 방법은 글을 많이 써보며 자신이 선호하는 단어, 자신이 선호하는 장면구사 방법, 자신이 선호하는 표현 등을 찾는 것이다.

결론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작가가 독자로서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화식에 취해있다면 그 작가가 쓰는 화식과 비슷한 느낌을 따라갈 수 있다. 다만 작가는 창작자로서 자신의 색깔을 유지해야한다. 그렇다고 그 작가가 쓰는 화식을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용하되 작가로서 자신만의 화식으로 새로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독자로서 다른 작가의 문학작품을 보며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되도록 많은 작가의 화식을 파악하고 작가 자신만의 화식을 발현하길 바란다.